



OZE

꽃들이 만발하는 습원…오제는 지상 낙원

일본 최대의 고충습원 오제가하라를 비롯하여, 오제누마, 아야메다이라, 시부쓰산, 히우치가타케 등 개성적인 자연환경이 전개되는 오제국립공원. 풍부한 고산식물과 산악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오제는 등산객과 하이킹, 아마추어 카페라멘들에게 인기가 높다. 상징은 습원에 펼쳐진 총 연장 약 57km의 나뭇길.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산, 계절의 꽃….
장대한 자연 속을 트레킹.

아직 잔설이 남아 있는 봄, 상쾌한 바람이 부는 여름의 습원,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의 산, 오제를 산책하는 즐거움은 사계절 변함 없고, 언제 찾아와도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무리 지어 꽂피는 하얀 요정들….
물파초의 봄.

눈이 녹는 습원에 나타나는 오제의 하얀 요정, 물파초. 랑스러운 황새풀과 노란색의 동의나물 등도 같은 시기에 즐길 수 있다.

녹색과 조화를 이루는 노란색의 꽃 물결….
닛코 원추리의 여름.

습원에 노란색의 닛코 원추리가 이어지는 여름의 오제. 오제 고유종을 포함한 많은 고산식물들도 짧은 여름에 꽃을 피운다. 여름 산은 진한 녹색, 하늘은 파란색.

산도 습원도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
가을의 오제 또한 각별.

습원, 산악, 지당(池塘)과 떠 있는 섬…각자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특히 풀의 단풍은 오제의 가을을 대표하는 경치로, 꼭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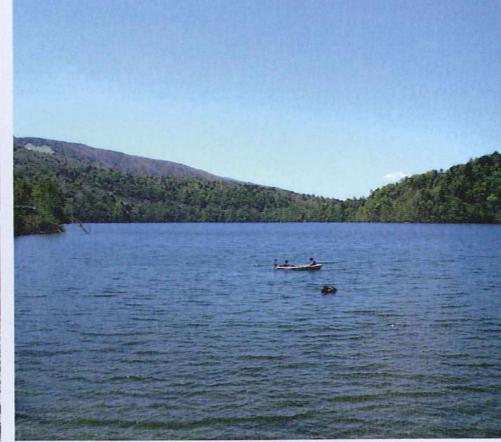
MARUNUMA

마음 설레는 웅대한 경치, 아름다운 호수, 사계절의 색채.

마루누마 지구의 상징은 간토 이북 최고봉인 닛코 시라네산(2,578m). 일본 100대 명산의 하나로, 등산 팬들에게 인기가 높은 산이다. 주변에는 다수의 외륜산과 호소들이 자리해 있다. 멋진 경관과 다양한 고산식물이 찾는 이들을 매료하고, 특히 가을의 단풍은 절경. 낚시와 스키, 온천도 즐길 수 있는 마루누마 지구는 그야말로 ‘자연을 즐기는’ 곳이다.

계곡 속의 조용한 호수, 마루누마.
호안에는 너도밤나무와 자작나무의 원생림.

자연의 호수가 땅 건설로 확대된 것이 현재의 마루누마. 옥새송어 등이 방류되어 있어, 뿐이나 플라잉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HOTAKA

영봉으로 둘러싸인 고원 리조트 지역.

옛날에는 수험도(修驗道)의 수행장이던 호타카산. 지금은 고원 리조트와 아웃도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해발 1,500m의 주변을 중심으로 목장, 스키장, 야영장, 아름다운 너도밤나무 숲 등이 자리해 있다. 일대에는 팬션과 민박, 여관도 많아, 스포츠 합숙과 등산기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상쾌하며, 겨울에는 양질의 눈이 자랑거리이다.

동물들이 뛰어 놀고, 꽃이 피고….
목장에서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해발 1,500m의 고원에 펼쳐진 호타카목장.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여름산 리프트가 재미있다. 조랑말이나 염소와 뛰어 놀기도 하고,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SKI

양질의 눈을 즐기는 원터 레저.

산간부에 자리해 있어 해발이 높은 가타시나무라에는 7개의 스키장이 있다. 자랑거리는 각 스키장의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젤렌데. 코스. 시설과 양질의 파우더 스노우. 스키어, 스노보더, 가족동반에서 경기 연습까지, 목적과 취향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 스키장에 따라서는 스노모빌이나 스노우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좋은 컨디션은
고원지대 스키장의 특징.

가타시나무라의 스키장은 해발을 활용한 긴 시즌과 파삭파삭한 파우더 스노우가 특징. 좋은 컨디션으로 휴식을 즐기는 원터 레저.



SPA & STAY

온천은 여정 만점, 심신 모두 편히 휴식.

가타시나무라에는 수질과 분위기가 다른 9개의 온천이 자리해 있다. 여정 넘치는 이 온천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느긋하게 온천에 들어가 등산이나 트레킹으로 쌓인 몸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고, 운전 도중에 들르는 족탕도 특색이 있다. 바람소리, 새소리, 사계절의 경치, 인정과 따뜻한 온천… ‘산 속의 온천’은 오감으로 만끽하는 것이 정답.



숙박시설

오제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조슈 호타카산, 닛코 시라네산 등 일본 100대 명산이 있고, 그 계곡마다 편안한 숙박시설이 있다. 민박, 여관, 팬션, 호텔 등 약 270개 숙박시설이 있어, 숙박 수요에 맞추어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

야영에 바베큐.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기는 휴일.

호타카목장 내에는 야영장이 있고, 로그 하우스와 정기스칸 하우스가 정비되어 있다. 새소리에 잠을 깨고, 숲 속에서 즐기는 휴일은 최고.

안개 끈 아침, 숲 속으로 헷살이 내비치는 낮….
마음이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너도밤나무 숲.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진 호타카의 너도밤나무 숲. 안개 끈 아침, 숲 속으로 헷살이 내비치는 낮… 순간 순간의 표정이 모두 아름답다. 수원 함양의 기능도 뛰어난 소중한 자연이다.

